

'아카이브(자료) 전문가' 김달진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관장

김달진 관장이 미술관 전시 도록을 들고 스마트폰으로 유튜브용 영상을 제작하고 있다.

안윤수기자 ays77@

“이번엔 걸어다니는 ‘미술 유튜버’ 도전”

“아카비스트(기록관리자)인가, 잡지편집인가, 박물관 관장인가, 연구자인가 등 제 실체에 대해 많은 분들이 질문합니다. 아카이브 전문박물관을 연구소와 함께 운영하고, 미술 현장 취재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여러가지 직함에 최근 시작한 ‘미술 유튜버’가 하나 더 추가된 셈이죠.”

국내 화단에는 “김달진을 모르면 간첩이다”라는 우스개 소리까지 돈다. 평론가 등 식자들은 그를 “살아있는 박물관”, “걸어다니는 미술사전”으로 부르기도 한다.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을 운영하며 쉼없이 미술계 현장을 돌아다니는 김달진(66) 관장이 이번에는 미술 대중화를 위해 ‘유튜버 전도사’로 나섰다.

김 관장의 유튜브 ‘달진티비’는 크게 두 가지 주제로 이뤄져 있다. 첫째, ‘김달진이 가다’는 전시장을 찾아가서 현장 소개와 함께 작가 또는 기획자와의 인터뷰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전 시작품 및 작가 얼굴, 육성을 기록으로 남긴다.

또 조건, 석간, 통신사, 지역신문 기사브리핑을 통해 미술, 문화재의 전시, 이슈, 정책 등을 빠르게 전한다. 미술 관련 신간, 잡지 등도 소개한다.

김 관장은 일찌감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의 중요성을 알아차렸

기록관리자·연구자 등 직함 다양 ‘달진티비’ 현장정보·기사 브리핑 미술 대중화 위해 SNS 전도사 자료수집, 시각의 역사 기록하는 길 정치·사회 역사와는 또 다른 가치

다. 홈페이지도 세 개나 운영하고 있다. 연구소 트위터는 4만여명, 페이스북은 3000여명이 팔로우 하고 있다. 또 개인 페이스북 팔로어는 5000여명, 인스타그램은 1300여명에 이른다. 이름이 알려지며 현장 특강 주문도 쇄도하고 있다.

그의 SNS에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이유는 미술에 대한 다양 하려서도 방대한 지식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사회에 발을 내디딘 후 그는 줄곧 엄청난 양의 미술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했다.

“아려서부터 잡안 어른들이 매일 잡지, 신문 쪼가리 오려 모으는 저를 보고 무엇이 될거냐고 염려했어요. 그러럼 자료 모으는 수집이 미술 쪽으로 연결돼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김 관장은 1981년 국립현대미술관 임시직으로 근무를 시작, 미술관에 자료실을 만들고 첫 자료담당자가 됐

다. 이어서 가나아트 자료실장을 거쳐 2002년 미술정보잡지 ‘서울아트가이드’를 창간하고 2008년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을 개관했다. 박물관은 여러 장소를 거쳐 현재는 홍지동에 자리잡고 있다.

박물관 개관 후 ‘미술정기간행물 1921~2008’, ‘한국현대미술 해외진출 60년’, ‘외국미술 국내전시 60년’, ‘한국미술단체 100년’, ‘한국근현대미술 교과서’, ‘한국미술공모전의 역사’, ‘한국미술 전시공간의 역사’, ‘한국 추상미술의 역사’, ‘20세기 한국화의 역사’, ‘한국 미술평론의 역사’, ‘한국 미술잡지의 역사’ 등을 펴냈다.

그같은 열정을 인정받아 2013년 중학교 도덕교과서②(금성출판사)의 ‘직업 속 가치탐구’ 코너에 ‘자신의 취미를 직업으로 만들다-아카비스트 김달진’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교과서에는 아카비스트에 대해 ‘작품 및 작가에 대한 기록이나 전시, 미술품에 대한 기록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란 설명도 달려 있다.

2010년에는 대한민국문화예술상(대통령), 2016년에는 홍익기창조인상(중앙일보, 유민문화재단)을 받았다. 한국박물관협회 감사, 한국사립박물관협회 이사직도 맡아 활동 중이다.

“일찌감치 마르셀 프루스트는 ‘진

정한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가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술 자료 수집은 우리 인류가 걸어온 ‘시각의 역사’를 기록하는 일입니다. 시각예술은 시대를 앞서가기 때문에 정치, 사회, 문화의 역사와는 또다른 가치가 있습니다. 미술은 프루스트가 말한 ‘새로운 눈’을 갖게 해줍니다.”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은 최근 기획전도 열고 있다.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외국 연구자의 한국미술 연구’ 전으로 4월24일까지 계속된다.

한국미술을 다룬 외국 연구자들의 단행본, 전시 팸플릿, 사진 등 아카이브 100여점이 전시되고 원로 이룬가들의 인터뷰 영상 및 관련 서적을 만날 수 있다. 한국미술사를 통사(通史)로 최초로 가술한 성 베네딕도회 신부인 안드레아스 에카르트(1884~1974)의 조선미술사(Geschichte der koreanischen Kunst, 1929) 등 희귀 서적도 진열돼 있다.

“제가 미술 현장을 동분서주하며 일을 하는 데는 가족들의 도움이 가장 큰 힘이 됐습니다. 지금도 아들 정현(34)이는 박물관 큐레이터로, 딸 영나(37)는 미술잡지 ‘서울아트가이드’ 편집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택기자 ktlee@

김관장 추천 ‘미술초보자 입문서 5’**‘아무래도...’ 월급쟁이 위한 미술품 투자 가이드****옛 그림 읽는 법**

이종수 지음/유유

검제 정선은 알아도 막상 작품 앞에 서면 검은 부분은 먹이요, 하얀 부분은 종이일 뿐이다. 우리 산수화를 작품설명서인 명제표부터 시작해, 한 걸음씩 작품 속으로 걸어 들어가며 감상법을 알려준다. 226쪽, 1만4000원

아무래도 그림을 사야겠습니다

손영옥 지음/자음과모음

초보 컬렉터용 책. 평범한 월급쟁이가 미술품을 사려면 얼마가 있어야 하고, 어디서 구입하며,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는지 알려준다. 한역 일간지 미술담당자가 집필, 거래 현장 상황을 실감나게 반영한다. 272쪽, 1만6800원

예술적 인문학 그리고 통찰: 1확장편

임상빈 지음/마로니에북스

“순수미술이 꺼리고,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예술작품에서 어떻게

아이디어가 형성되고”, “예술은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지”, 우리가 “예술로 찾을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탐험한다. 432쪽, 1만8000원

난생처음 한번 공부하는 미술 이야기 6

양정무 지음/사회평론

문답 형식의 구어체로 썼다. 총 8권

으로 기획, 6권에서는 알프스산맥 북쪽 지역과 베네치아의 르네상스 미술에 초점을 맞춰 초기 자본주의가 미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본다. 584쪽, 2만5000원

살아남은 그림들

조상인 지음/놀와

이종설, 박수근, 김환기 등 우리에게 익숙한 화가들을 비롯해 오지호, 변관식, 김창열 등 뚜렷한 족적을 남긴 미술가 38인의 삶과 작품을 담았다. 저자는 십수년째 미술·문화재 분야에서만 일한 전문가다. 404쪽, 2만1000원